

AI로 연구 속도 높이고 깊이 더한다...

GIST AI-ACE 이노코어 연구단, 실전형 AI 활용 연구 교육 개최

- 23일 GIST서 멘토·펠로우 대상 세 번째 AI 교육... 논문 분석반복 업무 자동화 등 실무 중심
- 맞춤형 AI 도구 제작부터 데이터 분석·예측, 연구 전 과정 연결하는 AI 활용법 실습



▲ 10월 23일(금) GIST 오룡관에서 열린 '2026 GIST AI-ACE InnoCORE AI 교육 III'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'뇌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AI+나노융합(AI-ACE InnoCORE) 연구단'(단장 이은지·신소재공학과 교수)이 10월 23일(금) GIST 오룡관에서 연구단 소속 멘토와 펠로우를 대상으로 '제3회 AI 활용 연구역량 강화 교육(2026 GIST AI-ACE InnoCORE AI 교육 III)'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교육은 연구자들이 인공지능(AI)을 활용해 논문 분석과 데이터 처리, 시각화 등 연구 과정의 반복 업무를 효율화하고, AI 도구를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교육은 AI 및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퍼브(Firb)의 김용담 강사가 맡았으며, 대형언어 모델(LLM)과 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AI 도구를 연구 업무에 적용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.

주요 내용은 ▲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한 연구 생산성 향상 ▲연구자 맞춤형 AI 스킬(skill) 제작 ▲AI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분석·시각화 및 머신러닝 예측 ▲깃허브(GitHub) 오픈소스를 활용한 연구 파이프라인 구축 등이다.

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해 논문을 비교·분석하고 선행연구 조사와 연구 아이디어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도구를 제작했다. 또한 자연어 명령으로 연구 데이터를 정리·시각화하고 머신러닝 예측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익혔다.

문헌조사부터 실험, 결과 정리, 논문 초안 작성까지 **연구의 여러 단계를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방법**도 살펴봤다. 이를 통해 연구 과정 전반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.



▲ '2026 GIST AI-ACE InnoCORE AI 교육 Ⅲ' 참가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한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.

연구단은 **2025년 9월 출범** 이후 연구자들의 **AI 활용 역량을 높이기** 위한 **단계별 교육**을 이어오고 있다.

2025년 첫 번째 교육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환경을 다루는 'AWS AI Deep Dive' 교육을 통해 기초 역량을 다졌으며, 올해 8월 열린 '성과공유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'에서는 AI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과 특허 발굴 전략을 다뤘다. 이번 세 번째 교육에서는 **AI를 활용한 연구 업무 자동화와 연구 단계 간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.**

장환동 AI-ACE 이노코어 연구단 펠로우는 "연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정리와 분석 작업을 **AI 에이전트와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동화하는 방법**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"며 "앞으로 **공동연구와 논문 작성에도 큰 도움**이 될 것 같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이은지 AI-ACE 이노코어 연구단장은 "이번 교육은 펠로우들이 연구 현장에서 **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**을 기르는 기회가 됐다"며 "앞으로도 **4대 과학기술원과 참여기관의 멘토·펠로우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바이오·AI 융합 연구**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지원을 이어가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AI-ACE 이노코어 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출범했으며, GIST를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(KAIST)·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·울산과학기술원(UNIST)과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.

연구단은 AI와 나노기술을 융합해 뇌질환 조기진단 기술 개발과 AI·과학기술 융합
연구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.